

<한국 역사인물 초상화DB 편찬 내용 및 방법 - 민족기록화 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본 연구팀은 표준영정에서 추출한 인물 정보와 문화재 지정 영정에서 추출한 인물 정보를 통해 1차 년도에 개발한 민족기록화 플랫폼에서 간과되었던 주제들을 보충,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민족기록화DB에서 구축한 인물 노드 115명과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96명의 인물 중 중복 인물 35명을 추출한 뒤, 중복되지 않은 80명의 인물 노드에서 문화재 지정 영정으로 그려진 인물 4명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중복 인물은 민족기록화 작품 106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표준영정 인물(1차 노드) 21명과 문화재 지정 영정 인물 1명 총 2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기록화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1차 노드와 관련된 유의미한 인물(2차 노드)은 표준영정 인물 14명과 문화재 지정 영정 인물 3명으로 총 17명이다. 중복되는 39명의 인물 노드로부터 1차 년도에 구축한 민족기록화 인물 데이터의 시각적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민족기록화 인물 이미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표준영정 기준 민족기록화 관련 예시

	표준영정 인물	표준영정 작가	해당 민족기록화	민족기록화 작가
1	중봉 조헌	김기창	조헌선생의 금산전투	정창섭
2	장보고	이종상	장보고의 해상 활동	박광진
3	최무선	신영상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	최대섭
4	다산 정약용	장우성	정약용과 저술	정창섭
5	고산자 김정호	김기창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김태
∴	∴	∴	∴	
27	김대성	김창락	김대성과 석굴암	이종상
28	최익현	채용신	최익현 선생의 유해 환국	이의주
29	서희	권오창	안용진 담판을 하는 서희	이인영
30	허준	최광수	허준과 동의보감	박득순
35	최영	최대명	최영장군의 홍산전투	박창돈

【표 2】 문화재 지정 영정 기준 민족기록화 관련 예시

	문화재 지정 영정 인물	해당 민족기록화	민족기록화 작가
1	임경업	백마산성을지킨임경업장 군	신영상
2	강민첨	귀주대첩	이용환
3	홍선대원군	최익현 선생의 유해 환국	이의주
4	채제공	정약용과 저술	정창섭

<한국 역사인물 초상화DB 편찬 내용 및 방법 - 민족기록화 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또한 본 연구팀은 표준영정 작가와 민족기록화 작가 중 중복되는 2명의 작가를 추출하였다. ‘운보 김기창’ 화백은 민족기록화 작품 1점, 표준영정 6점을 제작했으며, ‘일랑 이종상’ 화백은 민족기록화 작품 4점, 표준영정 7점을 제작했다. 2명의 작가 노드는 민족기록화DB 작가 데이터를 보충 및 보완할 수 있다.

【표 3】 작가 기준 표준영정과 민족기록화

작가	표준영정	민족기록화
운보 김기창	세종대왕, 을지문덕, 중봉 조현, 고산자 김정호, 무열왕, 문무왕	명량대첩
일랑 이종상	우륵, 광개토대왕, 원효대사, 윤관, 장보고, 김홍도, 윤선도	고구려 고분 벽화,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태종무열왕, 김대성과 석굴암

이렇게 추출한 39명의 인물 노드와 2명의 작가 노드는 **한국 역사인물 초상화DB**와 민족기록화 DB,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지식을 확장적으로 수용하여 이야기를 발굴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팀은 표준영정과 문화재 지정 영정을 통해 민족기록화에 담기지 않은 한국문화의 주요 사건과 주제 의식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발굴, 수집, 제작하여, 민족기록화 디지털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기반으로 균형성을 갖춘 한국문화사 시각자료집을 제작하고자 한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시이다.

- * 가야의 인물들(김수로왕, 허왕후, 정견모주, 이진사이왕, 우륵)과 백제의 인물들(서동, 선화공주, 백제도미부인, 무왕, 무왕비)을 통해서 민족기록화에서 누락된 가야와 백제 시대를 재조명한다.
- * 여성 인물들(백제도미부인, 신사임당, 허난설헌, 무왕비, 허왕후, 유관순, 정견모주, 김만덕, 장계향)을 통해서 여성이 작품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았던 민족기록화의 맹점을 극복한다.
- * 불교적 색채를 가진 인물들(일연, 이차돈, 원효대사, 의상대사, 최치원, 왕건)을 통해서 한반도의 불교문화를 살펴본다.
- * 문화/예술 관련 인물들(김병연, 윤선도, 한석봉, 우륵, 왕산악, 강수)을 통해서 주로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한다.